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내 지자체 9곳, 최저임금법 위반

민노총 조사결과 지난해보다 늘어
진안·정읍 등 과소 책정
매일 기준치보다 적게 지급
김제 등 4곳은 반복 위반

〈최저임금 미달 인건비(기간제, 무기계약직)를 예산 편성한 지자체〉 (2015~2016)

전북	2015		2016		반복위반
	전주, 김제, 정읍, 완주, 진안	5	김제, 정읍, 완주, 부안, 순창, 무주, 진안, 장수, 임실	9	
					4

(민주노총 제공)

진안군 A과는 올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인당 월 101만원으로 책정해 최저임금보다 매일 25만원 덜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진안군 B과는 8호봉에 해당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125만 7,400원으로 책정해 최저임금인 126만 270원보다 오히려 2,870원 적었다.
이 같은 형식으로 정읍시 C과는 25만원 임실군 D과는 22만원을, 부안군 E과는 13만원, 무주군 F과는 12만원을 과소 책정해 매일 지급했다.

이처럼 도내 지방자치단체 절반이상이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민주노총이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에 따르면 전북도를 포함한 15개 지자체 중 최저임금법을 어긴 지자체는 총 9개 지자체에 해당했다.
이번 조사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241곳의 2016년 세출사업명세서에서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분석한 결과다.

정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월 환산액은 126만2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민주노총의 발표 자료에 의한 최저임금 미달 인건비 편성 도내 지자체는 김제시와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등이다.
해당비율로만 본다면 절반이 넘는 60%에 해당된다.
이들 지자체 대다수는 기간제노동자 일급을 올해 최저임금이 아닌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4만4540원(5,580

원 X 8시간)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문제는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가 7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9개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특히 김제와 정읍, 완주, 진안 등 4개 지자체는 지난해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올해 또다시 반복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스스로 불명예를 자초하고 있다.
결국 법 위반을 지도·감독해야 할 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지자체 국경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음에도 더 많은 위반사례가 발견돼 문제의 심각성이 엄중하다"면서 "낮은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공공부문에서조차 이를 지키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에 최저임금 위반한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고민형 기자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불기 2600년 석가탄신일을 이틀 앞둔 12일 오전 한 절간에서 동자승들이 관복의 식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찾는 노인 장애인 금융업무 처리 서류 없어도 된다

말로만 신청해도 접수하는 '구술민원제' 시행

새마을금고를 찾는 노인과 장애인 등은 앞으로 별도의 서류 작성없이 상담만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취약계층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말로만 신청해도 금고직원이 접수·처리하는 '구술민원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술민원제도'는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서류 또

는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 힘든 민원인(노인·장애인 등)을 대신해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민원요지를 정리해 접수·처리하는 방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 거래자 1857만 명 중 약 25%에 해당하는 457만명이 60세이상 고객으로 구술민원제도가 효과를 볼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하고 있다.
구술민원은 민원인이 청구상담을 하면서 구술민원 접수를 희망할 경우 금

고직원이 구술민원 신청서를 작성한다. 민원인이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새마을금고 직원이 해당 내용을 업무처리 시스템에 올리고 민원 접수증을 교부하게 된다.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담당자를 배정하고 민원접수 후 14일내에 민원처리 결과가 민원인에게 통지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어르신들과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4월 도내 실업자수 전년동월보다 8000명 증가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실업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의 '4월 전북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실업자 수는 2만6000명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약 8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고용 시장이 위축 돼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실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주부와 학생 등 기간 취업의지가 없던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시장에 뛰어들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과 제조업 등의 부진도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영수 기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라"

전국시·도의회 의장이 지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12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 이름으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 대등한 관계 구축 ▲지역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구축 ▲지방의 권한과 기능 확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을 원리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역설했다. /정영수 기자



'위안부 아픔 잊지 않겠어요'
남원 평화의 소녀상 제막
남원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2일 사랑의 광장에서 전쟁범죄의 참상을 기억하고 평화실현과 인권존중을 염원하는 남원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기념행사와 문화제를 가졌다.
남원평화의소녀상의 제안자인 추진위 공동대표 문홍근목사(살림교회)는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계기로 평화의 인권의 지킴이로서의 소녀상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남원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고 다시는 전쟁범죄가 미래세대에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시민들의 뜻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화제에서는 시민들로 구성된 130명의 합창단이 복효근 시인의 '그날까지 함께'로 작곡한 '누이'라는 곡을 한 목소리로 불러 참석한 시민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오늘 제3회 전국 품바 명인전 개최

오후 4시 전주 품바문광장 특설무대

품바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풍자요 해학이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삶의 회로에락, 정치·사회문제 등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의 전통예술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시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전국의 품바 명인들을 초청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전주에서 제3회 전국 품바 명인전을 열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최 : (사)전북다문화진흥원
- 후원 : 전주시
- 품바 명인: 서봉식, 이설이, 서봉구, 유달산, 최 민
- 초대가수: 정해진, 진국미, 김다나, 진정아, 박인경
- 문의처 :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

2016. 5. 13 - 5. 16
N A M S O N
CHUNHYANG FESTIVAL

춘향제
사랑한다면
을추자!

사랑춤 플래시몹 대작전

5. 14 ~ 5. 15 / 차 없는 거리에서 / 누구나 / 사랑춤을 덩실덩실 추어보세 ~ 춘향/꺼지지 않는 사랑

주최 | 남원시 | 춘향문화선양회 | 주관 | 제86회 춘향제진행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전북도 | 국립민속극원 | 국립무형유산원 | 제의남원양무회